

CREATION *Truth*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NEWSLETTER

Volume 24 Number 07 **07** 2016



유신론적 진화론 11

창세기는 역사를 서술한 것이지 *히브리 시가 아니다.*

“왜 당신은 창세기를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창세기는 일종의 히브리 시가 아닌가? 그것을 진짜 역사로 취급할 필요가 없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대로 되니라” 등 반복되는 구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실제로 많은 신학교에서 이와 같이 가르치고 있으며, 이런 문학적 접근이 대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창세기는 히브리 시로 분류될 수 없다. 왜냐하면 성경의 내적 근거를 바탕으로 문학적 접근을 시도하더라도 창세기가 시일 수 없기 때문이다. 창세기는 한 마디로 히브리 서술형의 산문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창세기는 실제 역사의 기록일 뿐이다.

히브리 시와 산문의 차이점

창세기가 시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산문인지를 알기 위해서 먼저 히브리 시와 다른 언어의 시의 차이점을 알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히브리 시는 영어나 한국어의 시와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한국어나 영어의 시는 말의 “하드웨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즉 시가 되기 위해서는 “소리”가 중요하다. 반면에 히브리 시는 “소프트웨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즉 소리가 아니라 “의미”가 중요한데, 소리가 아니라 사고의 대꾸(병행)가 드러난다.

예를 들어 한국의 시조로 유명한 고려 말 이방언의 ‘하여가’를 예를 들어보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령첩이 얹혀진들 그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얹혀져 백 년까지 누리리라.

먼저 기본적으로 3, 4조 글자수를 맞추는 운율로 진행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떠하리’가 계속 반복된다. 즉 같은 글자 수를 통한 틀이 반복되고,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기에 같거나 유사한 발음이 반복된다. 이는 영어 시도 마찬가지다. 즉 이 시들은 소리의 틀이 강조된다.

반면에 히브리 시는 의미와 정보의 대꾸로 정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좋은 것과 나쁜 것, 현명한 것과 어리석은 것, 경건한 것과 불경한 것과 같은 대꾸이다. 히브리 시는 문장이나 구를 통해서 동의어의 대꾸를 또는 반의어의 대조를 비교한다. 이런 언어적 특성을 알아야 성경적 히브리 시를 제대로 읽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런 특징은 구약 성경에 등장한 히브리 시인 시편, 잠언, 예레미야 애가, 아가서 등의 대부분에서 드러난다. 그러나 창세기는 이와는 전혀 다르게 진행된다.

아래 몇 가지의 예는 히브리 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시편 104편

29절

주께서 낮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30절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주의 영을 보내어)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시편 104편의 29절과 30절은 의미의 대꾸적 유사성을 잘 보여준다. “주께서 낮을 숨기신”(29절) 것과 ‘주께서 영을 보내신’(30절), ‘그들이 떨고’(29절)와 ‘그들



을 창조하사’(30절),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29절)와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30절)가 서로 대조적인 대꾸를 보여준다. 이 시편은 소리로 볼 때는 두 절 간에 운율을 발견할 수 없지만, 의미 상에서는 29절과 30절이 대꾸를 발생시킨다. 즉 29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조물의 죽음을 조절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반면에, 30절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피조물에 생명을 조절하시는지를 말한다. 29절이나 30절의 충분한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전체적인 의미상 대꾸 구조를 인지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어떤 문장이나 문단에서 히브리 시인지 아닌지 검증하는 방법이다.

다른 예로 잠언을 보자. 어떤 장이든지 매 절마다 연속적으로 의미의 대꾸 구조로 가득 차 있다. 때때로 대꾸 구조는 한 절 안에서도 등장한다. 예를 들어 잠언 28장을 보면,

15절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린 곰 같으니라.

16절

무지한 치리자는 포학을 크게 행하거나,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악한 관원’(15절)과 ‘무지한 치리자’(16절)는 유사하며 그 묘사도 비슷하다. 반면에 16절 한 절 안에서도 ‘무지한 치리자’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가 대조적으로 등장한다. 여기서 소리에서의 유사성이 아니라 의미에서의 유사성과 대조성의 대꾸를 보여주는 것이다.

대꾸 구조가 한 절에서 압축되어 나타나는 또 다른 예가 같은 장에 28절에 등장한다.

28절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악인’과 ‘의인’, ‘일어나’와 ‘멸망함’, ‘숨는 것’과 ‘많아짐’이 서로 대꾸 구조를 보여준다. 대꾸 구조는 히브리 시의 정보적인 구조를 돋보이게 한다. 이는 주의 깊게 읽어야 실수하지 않는다. 다행히 히브리 시가 소리가 아닌 의미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영어나 한국어로 번역되었다고 할지라도 시적인 면을 찾아볼 수 있으며, 이런 문학적 지식을 갖추고 읽는다면 그 히브리어다운 시적인 분위기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접근해볼 때 창세기는 히브리 시가 갖추어야 할 정보적인 대꾸 구조를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창세기 4장에서 산문과 시가 함께 나오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쉽게 비교해볼 수 있을 것이다. 산문으로 진행되다가 23, 24절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말한 시적 내용이 등장하는데 이때 갑자기 대꾸 구조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23절

아다와 쉴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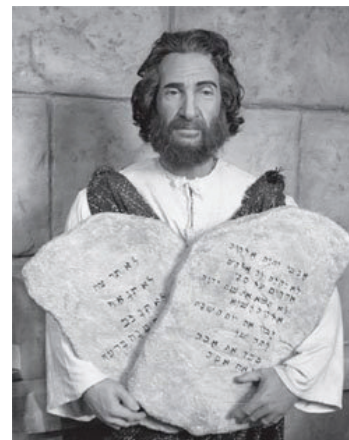
‘아다와 쉴라’와 ‘라멕의 아내들’, ‘내 목소리’와 ‘내 말’, ‘나의 상처’와 ‘나의 상함’, ‘사람을 죽였고’와 ‘소년을 죽였도다’와 같이 유사한 의미가 대꾸를 이룬다.

24절

가인을 위하여는 별이 칠 배일진대

라멕을 위하여는 별이 칠십칠 배이리로다

‘가인’과 ‘라멕’, ‘칠 배’와 ‘칠십 배’가 대꾸로 반복된다. 23절에서 ‘죽였다’는 한 번의 동일한 단어가 반복된다고 할지라도 그 문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의미의 반복을 통해 자신의 잔인함에 대한 무감각을 자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창세기 다른 어디에서도 이런 식의 시적 표현은 찾을 수 없다. 문학적 접근을 하더라도 언제나 서술적 기록이다. 그러므로 창세기를 시로 보는 것은 옳은 해석일 수 없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실과 아담과 그의 후손들의 역사가 서술적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러므로 창세기를 읽을 때 역사적 기록으로 읽어야 한다. 그렇



지 않으면 많은 실수를 하게 된다. 왜냐하면 서술방식을 보더라도 창세기의 저자는 진짜 역사를 적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시가 될 만한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창세기 1-11장을 히브리 시로 읽으려고 노력하는 것일까? 시로 읽음으로써 얻어지는 혹은 버려지는 것이 무엇인가? 구지 그러한 접근을 하려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진짜 역사인 창세기를 분명한 역사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지적인 추구에 있을 것이다. 그 기록들이 시적인 표현이라고 함으로써 기록된 그대로가 사실일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이 태도의 중심에

창세기를 진짜 역사로 볼 수 없게 만드는 진화 역사가 들어있다. 수십억 년의 지질시대 동안에 생존경쟁, 자연선택, 진화와 멸종 등이 반복되었다는 역사 말이다. 그들은 창세기 1-11장이 수십억 년 진화의 역사와 양립이 안되는 당혹스러움을 버리고 싶은 것이다. 창세기가 진짜 사실임을 포기하기 위해 ‘시’이기를 원하는 것이다. 또 다른 이유를 꼽자면, 이런 진화론적 사고와 함께 소위 ‘신학적 전문가’로 불리는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잘못 배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배운 사람들이 다시 전문가의 위치에 앉은 악순환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이는 성경을 읽을 때 지적인 면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다. 창세기를 서술적 기록으로 볼 때보다 시적인 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얼마나 받아들이기 어려운지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한 역지가 더욱 세련되고 지적인 태도인 양 굴림하는 현실 뒤에는 수십억 년을 말하는 진화 역사가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진실한 검증도 없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유행하는 신학적 풍토에 쉽게 타협시키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성경에서 ‘시’로 구분된 책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성경 기자들은 사실을 말하는 것이 그 의도였다는 것이다. 그것이 시이건 산문이건 간에 기자들은 이를 통해서 마음에 갖고 있는 사실을 전하고자 애쓴 것이다. 욥기, 시편, 잠언, 아가 그리고 전도서가 시라고 분류되었을지라도 성경 기자들이 반복의 대꾸 방식을 통해서 정보와 의미를 강조하려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모든 성경”에 시가서가 제외될 수는 없다. 결국 모든 성경은 성경 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시는 마음과 사실 역사가 담겨있는 것이다.



이재만 회장
지질학, 과학교육학



600 세대가 지난 후에도

초파리의 진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생물학과 교수들이 일상적으로 설명하는 것과는 다르게, 많은 미국인들이 대 진화가 일어났다고 믿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인들은 모든 생명이 수억 년 전에 기적적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공통조상으로부터 유래 했다고 하는 개념에 아직 설득당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러한 대진화의 진정한 예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그것은 이해할 만하다.

만약 진화론적 생물학자들이 이러한 진화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그들은 그들의 세계관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었을 것이며, 그들의 비현실적 주장을 지지하는 실제 연구로서 인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1980년, 이러한 진화에 대한 증거를 찾기 위하여, 연구자는 열심히 목적의식을 가지고 초 파리의 발생에 관여하는 모든 중요한 유전자들에게 돌연변이를 일으켰다. 지금은 고전이 된 이 연구는 당시 네이처지에 출판되었고 저자들은 1995년 노벨상을 받았다. 그 실험은 발생에 관여하는 이러한 중요한 유전자에서 발생하는 그 어떤 돌연변이 - 돌연변이는 초파리가 더 진화된 다른 생물로 진화하는데 필수 적이다 - 도 단지 초파리가 죽거나 기형이 되도록 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따라서 이 실험은 사실 초파리가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 것이었다.

비슷하게, 미시간 주립대학의 진화론적 생물학자인 리처드 렌스키와 그의 동료들은 20년간 40,000세대에 걸쳐서 박테리아에서 진화의 증거를 연구했다. 결

국, 그들이 배양을 시작한 종은 축적된 돌연변이들로 인해 심하게 악화되었고, 관찰된 변화들은 모두 퇴행적이었다. 브리스톨 대학의 박테리아학과 명예교수 인 앨런 린튼은 그 상황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그렇지만 실험적 증거는 어디에 있는가? 한 종이 다른 종으로 진화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하는 논문에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 세대가 2,30분에 불과하고 18시간만에 군집이 형성되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독립적 생물인 박테리아는 이러한 종류의 연구에 가장 적합하다. 그러나 박테리아 과학의 150년 역사를 통해, 박테리아가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강력한 화학적 물리적 요소에 노출되었고 박테리아는 독특하게도 염색체 외에 전달 가능한 플라스미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종의 박테리아가 다른 종으로 변했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단세포생물 사이에 종이 변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고등한 다세포생물 전체는 물론이거니와, 원핵 생물로부터 진핵 생물로 진화했다는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네이처 지에 발표된 또 다른 최근의 연구에서, UC 알바인의 연구자인 폴리 버크는 600세대에 걸쳐서 발생한 초파리의 유전적 변화에 대한 연구를 이끌었다. UCI 연구소는 1991년부터 초파리들을 배양했고, 수명이 짧고 빨리 자라는 것들과 수명이 길고 느리게 자라는 것들을 격리했다.

UCI의 과학자들은 두 집단의 초파리의 성장과 수명에 영향을 주는 DNA 서열을 비교했다. 인간으로치면 12,000년의 진화에 해당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초파리들은 놀랍도록 적은 유전적 차이만을 보였다.

(중략)

진화는 1980년의 초파리의 유전적 조작에서 관찰되지 않았으며, 수 세대의 박테리아와 초파리에 대한 수십 년에 걸친 연구에서도 관찰되지 않았다. 그 실험들은 단지 이들 생명체들이 전달 수 있는 유전적 변화의 양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을 뿐이다. 이 한계를 넘었을 때, 그 생명체들은 진화하지 않는다 - 그것들은 단지 죽을 뿐이다.

이들 연구로부터 나온 실험적 결과들이 진화론적 “회전”으로 이름지어졌지만, 실제 실험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박테리아와 초파리들이 진화된 것이 아니며 창조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Brian Thomas, M.S. / 번역 : 이충현
<http://www.icr.org/article/no-fruit-fly-evolution-even-after-600>
 Article posted on November 16, 2010.



창조과학탐사

서울드림교회

지난 5월 3-9일 서울드림교회(담임목사 신도배, 김여호수아)에서 창조과학탐사에 참석했습니다.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교회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아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안산동산교회

지난 5월 13-19일 안산동산교회(담임목사 김 인중)에서 창조과학탐사에 참석했습니다. 매년 봄, 가을에 참석하는데 이번이 아홉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송촌장로교회(담임목사 박경배)에서도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54명을 버스에 가득 채우는 열기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

지난 5월 18-26일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에서 모집해서 창조과학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매년 봄, 가을에 모집하는데 이번이 여덟 번째입니다.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창조과학탐사를 모집하는 곳입니다. 한국에서 소그룹이나 개인적으로 참석하실 분들은 바이블 칼리지를 통해서 참석할 수 있습니다.

전주 동은 교회

지난 5월 31일-6월 8일 전주동은교회(담임목사 서정수)와 전주새중앙교회(담임목사 홍동

필) 평산교회(담임목사 강진상)에서 창조과학탐사에 참석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친분이 있으신 목사님들과 교회 성도분들께서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창조과학탐사 동안 참가하신 분들은 진화론적 사고에서 벗어나 성경의 증거들을 확인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또한 자신의 주변 역시 진화론으로 가득 찼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진화론적 사고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최근 한국에서 불고있는 유신론적 진화론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문제점이 있는지 배우고,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시도들은 여지없이 다음 세대를 교회에서 떠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참석자들은 가족, 자녀, 교회, 주위의 사람들을 창조과학탐사에 꼭 보내기를 희망하며, 이를 통해서 이 진화론 시대의 위기 속에서 기회로 만드는 역할을 하기를 다짐했습니다. 각 창조과학탐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기관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울드림교회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전주동은교회



안산동산교회

세미나

지난 5월 28일 이재만 선교사는 순회선교단 복음학교에서 “포스트모더니즘과 뉴에이지”, “타협의 거센 바람” 주제로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지난 6월 4일과 7일 아주사퍼시픽대학교에서 열린 “한인세계선교대회” 어린이 캠프에서 노회성 강사는 “공룡이 사람과 함께 살았을까?”, “Flood, Dinosaur, Ark”를 주제로 세미나와 워크숍을 인도하였습니다.

스토리북 제작

교회학교와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Genesis Flood”와 “History of Dinosaurs” 스토리북을 제작하였습니다. 노아홍수와 방주, 공룡에 대한 강의를 들은 후 아이들이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그림을 오려붙이고 빈 칸을 채우면서 직접 완성할 수 있도록 제작된 워크숍용 스토리 북입니다.



세계선교대회 워크샵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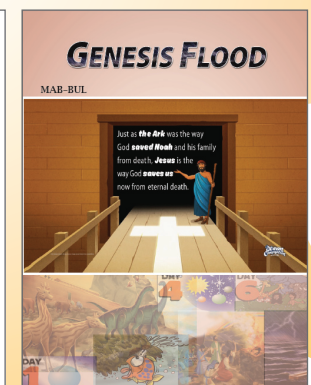
세계선교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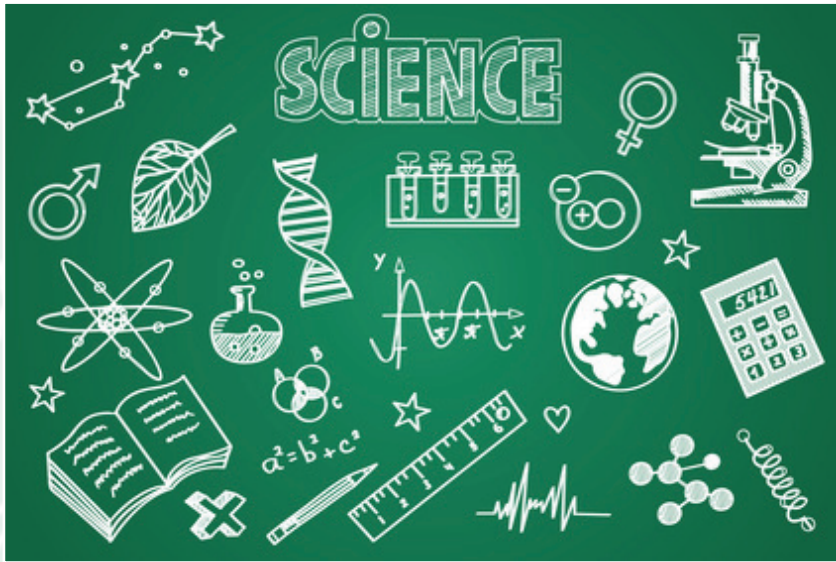
세계선교대회 워크샵 2



History of Dinosaur storybook



Genesis Flood storybook



교과서와 기원문제 (11)

빅뱅은 무가 유가 되는 기적

며칠 전 책상에서 PBS에서 만든 과학 동영상을 보고 있던 아들이 큰 웃음을 터뜨렸다. 아무리 동영상을 잘 만들었기로서니 물리를 다룬 내용인데 재밌을리가 있을까하는 생각으로 공부방에 가서 물었다. 그러자, 아이는 ‘엄마, 엄마도 한 번 봐보세요. 진짜 웃겨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뒤로 돌려 함께 보는데, 그 대목이 나오자 아이는 다시 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 장면은 한 점이 ‘뽕’ 터지면서 안개같은 것이 무질서하게 퍼져나가다 무언가가 뭉쳐지고, 그렇게 좀 더 퍼져나가다 물질들이 별과 은하들을 형성하며 팽창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런데, 그 처음 점이 ‘뽕’ 터지는 대목에서 한 과학자가 출현해 힘주어 말한다. “이 폭발의 순간이 바로, 모든 정교한 물리 법칙들이 최고로 질서있게 작용한 순간입니다.” 중학생의 상식으로 그 장면과 설명이 완전히 반대여서 웃음이 터질 수밖에 없었던 모양이다. 폭발은 그야말로 무질서를 만드는 과정인데, 모든 정교한 물리법칙들이 질서있게 작용한 순간이라고 말하니 너무 터무니가 없게 느껴졌던 것이다.

빅뱅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에 의하면, 아무것도 없는 우주(無)에서 고도로 정교한 물리법칙들이 작용하여 지금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은 질서와 균형과 복잡성이 겹비된 우주를 유도했다고 한다. 법(law)은 언제나 입법자(law giver)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것인데, 정교한 물리 법칙들이 아무도 없는 우주 어디에서, 어떻게 생겨났다는 것일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주 전체를 만들어낸 공간과 물질(에너지)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이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은 무시되고, 빅뱅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고등학교 1학년(10학년) 과학 교과서는 우리가 사는 우주의 기원이 빅뱅의 역사였다고 설명하기 위해 무려 대단원 전체를 할애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설명은 마치 그것을 관찰한 사실인 양 서술한다.

이와같은 미지의 세계가 어느 순간에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면서 지금의 우주가 탄생하였다. 이를 빅뱅이라고 한다. 탄생한 직후의 우주는 온도가 매우 높았다. 이처럼 우주의 온도가 높았던 것은 크기는 작았지만 그 안에 현재의 우주가 가지는 에너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

우주의 총에너지량은 생성도 소멸도 하지 않고 항상 일정하다. 이 사실은 어떤 과학자에 의해서도 반증된 적이 없다. 그러므로, 빅뱅에서도 현재 우주가 가지는 모든 에너지가 처음에도 그대로 있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 처음 에너지가 어떻게 있게 되었는지 그 누구도 말해줄 수 없다 데 있다. 빅뱅이론은 시간도, 공간도 있기 전 그 막대한 에너지가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나 스스로 존재하고 있었다고 함으로써 열역학 제1법칙을 반증도 없이 위배해버린다. 결국 우주의 시작에 대해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그 가설적 전제를 사실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우주는 분명 정교한 질서로 운행되고 있다. 인과율의 법칙, 열역학 법칙, 미시 세계를 붙들고 있는 힘들(강력, 약력, 전자기력)과 거시 세계를 붙들고 있는 중력 등 한치의 오차를 허용하지 않는 법칙과 힘의 균형에 의해 하늘의 질서(욥38:33)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빅뱅의 시작은 이러한 법칙들이 통하지 않고 원인도 없는 ‘미지의 세계’를 말한다.

진화론자이며 물리학자인 폴 데이비스(Paul Davies)가 빅뱅을 묘사하기를 “빅뱅은 물리법칙의 순간적 정지, 즉 무(無)에서부터 유(有)가 나오게 했던 섬광과도 같은 무(無)법칙을 의미한다. 그것은 일종의 진정한 기적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얼마나 정확한 표현인가? 스스로 무가 유가 되게 하였다고 하니 그것은 기적인 것이다. 성경대로의 창조가 기적이어서 믿지 못하겠다는 자연주의 과학자들의 최종 선택은 결국 또 다른 ‘기적’이었던 것이다. 그들의 생각은 분명 허망하여졌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롬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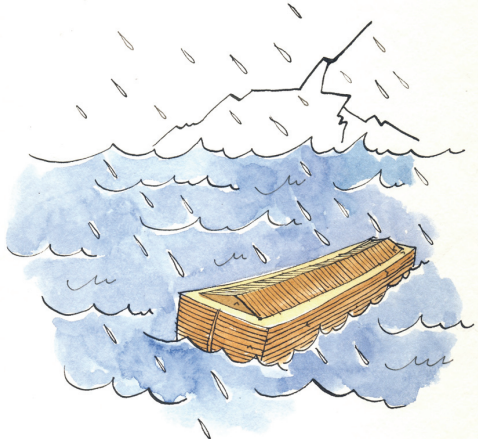
노회성 / 과학교사

[1] 안태인 외 11인, 고등학교 과학, 금성출판사, p22, 2011

창조과학탐사

간중 / 서울드림교회

5/2-8, 2016



삶에 많이 지쳐 일을 내려놓고 막연하게 쉬어볼까 마지막으로 기도원 오는 마음으로 참석하게 되었는데...창조와 예수님을 다시 깨달아 배우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용기가 생겼습니다.

- 백은희 <온누리교회>

하나님을 창조자로 믿고 알고 있지만, 나 하나의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기신 여러 흔적을 통해 믿어질 수밖에 없음을, 그것이 사실임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나와 있음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 박혜진 <서울드림교회>

오류가 있다면 성경이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인간에게 오류가 있을 것이고, 이제는 성경을 읽고 선포할 때 내 목숨(삶)을 거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 박용석 <서울드림교회>

항상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속으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까?"하고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어제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들어온 것이 느껴졌어요.

- 김지안 <송파드림교회>

창조론은 너무나 당연한 fact였으며, 하나님의 창조와 진화론을 별개로 믿은 제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이 더 피부로 느껴졌고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사실은 누가 뭐라 해도 사실이며, 성경은 그 사실입니다.

- 정윤이 <서울드림 교회>

진화론이 사실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 진실인것을 알리고, 우리 아이들과 교회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고, 이 아이들이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 자라나서 어둠 속에서 주님의 빛의 통로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 김승준 <서울드림 교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모호한 부분이 있었다. 창조과학탐사를 통한 퍼즐 맞추기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의 성경을 마음에 담고 간다.

- 김동희 <서울드림교회>



편집되지 않은 많은 간중은 Homepage(www.hisark.com)의 "ACT간중"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16 ACT Schedule

7/3-10	창조과학탐사 (일산산성교회), 이재만
7/14-20	창조과학탐사 (한동대학교교수), 이재만
7/21-24	창조과학탐사 (안산동산고등학교), 이재만
7/26-29	창조과학탐사 (전주목원교회), 이재만
7/30-8/4	창조과학탐사 (크리스천언론기자), 이재만
8/4-8/12	창조과학탐사 (인천온누리교회/와이즈마더링), 이재만
8/15-8/19	창조과학탐사 (일본팀), 이재만
8/22-8/26	창조과학탐사 (부산호산나교회), 이재만
8/29-9/1	창조과학탐사 (뉴저지초대교회/노회), 이재만
9/5-8	창조과학탐사 (성남금광교회), 이재만
9/9-15	창조과학탐사 (안산동산교회), 이재만
9/18-22	창조과학탐사 (성광교회), 이재만
9/26-10/1	창조과학탐사 (이랑학교), 이재만
10/6-10/13	창조과학탐사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이재만
10/15	창조과학세미나 (주님의영광교회), 이재만
10/21-23	창조과학세미나 (빙햄튼한인침례교회), 이재만
10/24-29	창조과학탐사 (하나님의성회 지방회), 이재만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CT(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창조과학선교회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P.O. Box 819, Norwalk, CA 90650
Office Address | 10529 Leeds St., Norwalk, CA 90650
Tel. 562-868-1697 www.HisArk.com / hisark@gmail.com